18과 총리가 된 요셉 - 조성웅 목사

성경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7)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Por esto mismo os he enviado a Timoteo, que es mi hijo amado y fiel en el Señor, el cual os recordará mi proceder en Cristo, de la manera que enseño en todas partes y en todas las iglesias.
(18)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Mas algunos están envanecidos, como si yo nunca hubiese de ir a vosotros

오늘은 16과 총리가 된 요셉을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그가 더하실 것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레아의 아들이죠?

그는 밧단아람에서 가나안땅으로 돌아오기 약 6년 전 쯤에 그 밧단아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그의 동생 베냐민을 라헬이 낳고 어머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의 삶은 항상 고난의 연속이었고 또한 환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러한 큰 민족으로써 하나님을 증거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시련과 승리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전반기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한 시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서 갚아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큰 위안을 주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37장 그리고 39장 1절부터 41장 45절까지 우리의 오늘의 본문으로 공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그러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성경말씀 창세기 41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y dijo Faraón a sus siervos: ¿Acaso hallaremos a otro hombre como éste, en quien esté el espíritu de Dios?

요셉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라고 또 이야기 할 수 있고, 롯을 이야기 할 때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얻은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그의 삶을 한 단어 내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아마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어지고 우리의 기념 책에도 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식어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을 수식하고 있는 그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참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그를 설명해 주는 이 말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 해 준다면 또한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이 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요셉은 그 어린 시절을 살펴 볼 때,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고 또한 미움도 받았던 사람들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를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했고 어려움을 받게 했을까?

몇 가지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 칠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Esta es la historia de la familia de Jacob: José, siendo de edad de diecisiete años, apacentaba las ovejas con sus hermanos; y el joven estaba con los hijos de Bilha y con los hijos de Zilpa, mujeres de su padre; e informaba José a su padre la mala fama de ellos.

요셉은 그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얼핏 이것만 보면 요셉이 고자질쟁이 정도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의 이야기들, 뭐 형제의 잘못을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좋게 여김 받지는 못 할 겁니다.

그런데 형들의 그러한 마음과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다.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죽일 마음을 먹습니다.

동생을 죽일 그런 마음을 먹죠?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런데 형들은 동생에게 큰 악을 계획 할 수 있, 계획했던 사람들이지요?

동생의 옷을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 쳐 넣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려서 종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생의 채색 옷을 취해서 염소를 죽여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다주고 동생이 죽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너무나 상심이 돼서 위로 받기를 거절할, 거절할 때 그 형들은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들이 그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위로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아니 아들들의 모습

그 형들의 모습.

참 위선적인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범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다도 돈을 받고 팔았고, 그 다음에 그 큰 형 르우벤 그도 동생을 보호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도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팔려갔을 때 자기의 자신의 그러한 안위만을 생각 했어요

아버지에게 혼날 것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들은 그러한 형들의 평상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어그러진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 합니다.

어찌됐건 요셉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함으로써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Y amaba Israel a José más que a todos sus hijos, porque lo había tenido en su vejez; y le hizo una túnica de diversos colores.

요셉은 나이가 어렸죠? 17살.

그리고 어머니 라헬이 죽었습니다.

어머니도 죽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가장 사랑한 사랑하였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여러 번 생각해도, 여러 번 생각해도 분명히 야곱에게 요셉은 너무나도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안쓰러웠겠죠?

더욱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요셉의 삶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삶에, 요셉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정말로 신실했고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증거 해 보여 주십니다.

아버지 야곱이 정말 범죄함 가운데 있는 그 형들과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때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 인가? 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었죠?

요셉이 야곱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큰 아들은 르우벤이었죠?

그런데 르우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물론 야곱에게도 큰 죄죠?

앞에 조금 넘겨보시면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간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22 Aconteció que cuando moraba Israel en aquella tierra, fue Rubén y durmió con Bilha la concubina de su padre; lo cual llegó a saber Israel. Ahora bien, los hijos de Israel fueron doce:

큰 아들이 자기 서모, 야곱의 그 첩과 통간을 합니다.

범죄를 하죠.

그로 인해서 그는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르우벤은 레아의 큰 아들이었죠?

레아의 큰아들이 범죄함으로 그 장자권이 라헬의 큰 아들인 요셉에게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상 5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Hiram rey de Tiro envió también sus siervos a Salomón, luego que oyó que lo habían ungido por rey en lugar de su padre; porque Hiram siempre había amado a David.

그렇죠?

요셉에게 그 장자의 권한이 넘어갔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시면 37장 5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Y soñó José un sueño, y lo contó a sus hermanos; y ellos llegaron a aborrecerle más todavía.

성경에는 요셉의 꿈 요셉이 꾼 꿈,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볏단이 요셉의 볏단에게 절을 하는 것과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두 가지의 꿈이 소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몽조를 요셉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셨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면 형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은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게 되지요?

창세기 뒤로 넘겨보시면, 37장 28절입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Y cuando pasaban los madianitas mercaderes, sacaron ellos a José de la cisterna, y le trajeron arriba, y le vendieron a los ismaelitas por veinte piezas de plata. Y llevaron a José a Egipto.

요셉은 결국 팔려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그를 형들은 시기했고 그 형들의 시기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큰일을 방해하려는 그러한 마귀의 승리는 항상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형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요셉을 팔아버리죠?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도록 마귀는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귀의 방해를 나중에 하나님의 큰일을 위해서 오히려 더 사용하십니다.

결국 요셉이 팔려갔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 모든 형제들이 애굽에 오게 되고 그로인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팔려간 요셉은 거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잡혀가자마자 그는 장군의 종이 되었습니다.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Llevado, pues, José a Egipto, Potifar oficial de Faraón, capitán de la guardia, varón egipcio, lo compró de los ismaelitas que lo habían llevado allá.

시위대장의 종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굉장한 권력 있는 자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지금 요셉을 인도하고 계셔요

하필 팔려가도 왕의 그러한 경호실장, 시위대장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

에 있으니
Mas Jehová estaba con José, y fue varón próspero; y estaba en la casa de su amo el egipcio.

(3)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Y vio su amo que Jehová estaba con él, y que todo lo que él hacía, Jehová lo hacía prosperar en su mano.

39장 2절이, 2절과 3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문을 던져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종으로서 살고 있는데 종으로서 살고 있는 그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해가 안가지요?

어떻게 종이 형통한 자가 됩니까?

종은 살아있는 짐승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말하는 짐승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대변 될 만큼 그의 인격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가 형통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국민일보 신문을 보면서 어떤 그 부흥회 제목을 좀 봤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랬더니 사업에 실패한 사람 오세요, 또 가정문제, 직장문제 해결합니다. 해가지고 그런걸 다 써놨어요? 이게 점집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것이 잘 되면 형통다고 생각해요

만사형통.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형통과는 너무 다른 형통이, 형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셉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므로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왜 나의 앞길이 이렇게 막막할까? 라는 그러한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 그 길은 형통한 길이고 그리고 그러한 선생님들은 주님 보시기에 형통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형통한 자이신지 그렇지 못한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순적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형통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봐야만 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감사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이방인들에게도 눈에 띄게 되었어요

4절에 보시면 3절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Y vio su amo que Jehová estaba con él, y que todo lo que él hacía, Jehová lo hacía prosperar en su mano.

이방인들에게도 보일뿐만 아니라, 4절 말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Así halló José gracia en sus ojos, y le servía; y él le hizo mayordomo de su casa y entregó en su poder todo lo que tenía

그랬습니다.

요셉은 신실한 자였고 충성 된 자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이라고 한다면 가나안과는 그렇게 뭐 썩 유대관계가 있고 그리고 충성할만한 그러한 나라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가깝지도 않은 그러한 애굽이라는 나라, 그것도 시위대장에게 충성하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은 요셉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철저히 의뢰했고 그 맡겨진 상황들에 철저히 순종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기에 그 자기의 주인에게 정말 충성을 다했고 주인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을 이겨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연단 된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도 해주심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간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Mas el Dios de toda gracia, que nos llamó a su gloria eterna en Jesucristo, después que hayáis padecido un poco de tiempo, él mismo os perfeccione, afirme, fortalezca y establezca.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과 같이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믿음은 참 견고해 졌습니다.

더욱 신실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한 번의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다른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가장 어렵고 이기기 어려 어려운 힘든 시험이 요셉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참 잘생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뭐 꽃미남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39장 보시면 6절에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Y dejó todo lo que tenía en mano de José, y con él no se preocupaba de cosa alguna sino del pan que comía. Y era José de hermoso semblante y bella presencia.

아무래도 외모가 뛰어난 사람엔 사람은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잘 생기고 아담한 그 요셉이 정말 일까지 충성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신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마음이 가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 요셉에게 마음을 두었지요?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이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준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기분 나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라고 하면 그 또한도 우리는 과감하게 피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함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동침하자고 날마다 졸랐지만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요셉에게 큰 어려운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하필 그때 아무도 없었는가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을 때

모르겠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아무도 없도록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9절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No hay otro mayor que yo en esta casa, y ninguna cosa me ha reservado sino a ti, por cuanto tú eres su mujer; ¿cómo, pues, haría yo este grande mal, y pecaría contra Dios?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Hablando ella a José cada día, y no escuchándola él para acostarse al lado de ella, para estar con ella,

(11)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aconteció que entró él un día en casa para hacer su oficio, y no había nadie de los de casa allí.

(12)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Y ella lo asió por su ropa, diciendo: Duerme conmigo. Entonces él dejó su ropa en las manos de ella, y huyó y salió.

(13)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도망함을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Cuando vio ella que le había dejado su ropa en sus manos, y había huido fuera,

(14)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llamó a los de casa, y les habló diciendo: Mirad, nos ha traído un hebreo para que hiciese burla de nosotros. Vino él a mí para dormir conmigo, y yo di grandes voces;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그는 거짓으로 요셉을 모함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아무도 없는 그 순간, 사람을 두려워 했다라면 요셉은 아마 사람을 의

지하고 사람을 의식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넘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기가 쉽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드러나면 그것이 큰 창피, 큰 뭐랄까? 부끄러움이 되는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눈 한 번 딱 감고 시위대장의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범죄 하는 그 자리에, 범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실은 하나님도 함께 하셨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였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죄에서 구별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을 받는다 라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까?

요셉의 예처럼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했음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구별되고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해 갈 때 그 죄로부터 구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죄를 이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시험을 당하는 환경에서 그러한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내가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봐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범죄치 않겠노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이, 길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만약에 요셉이 야 이거 이렇게 혹시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

지으, 지으면 뭐 보디발 장군이 알고 이런 모든 것을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았다면 그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고민이 되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아! 나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하지 말아야 겠구나 이런 뜻을 딱 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자꾸 의지가 약해지는 그러한 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지 누가 선보지 말라고 했냐고 선만 보고 결혼 안 해야지?

벌써 좀 마음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결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랑 하고 하도 조르니까 선만 보겠다

벌써 틈이 딱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마귀는 여기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가지고 넘어뜨리죠

생전 교회 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멋진 조건의 이방인의 남자가 딱 나타나요.

정말 외모도 멋있죠? 우리 형제님들은 정말 매너도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매너도 좋죠

옳지 됐다! 이런 사람이 구원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좀 바뀌죠?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같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아서 결혼하면 되겠네?

벌써 이제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제 결혼하는 순간까지 그 마음을 정하는 순간까지 결혼을 못하면 이제 또 작전이 바뀌죠?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 하나 자기 자신이 양보해가기 시작함을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뜻을 정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뭐 그 여주인이하고 뭐 함께 있는 게 뭐 잘 못 됐냐? 죄만 안 지으면 되지.

여러분 이제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 보면 사이도 좋아지고 또 오죽 유혹을 합니까?

그러다보면 아니 꼭 큰 죄만 안 지으면 되지 조금 손도 잡고 껴안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냐? 하고 약해질 수가 있을 거에요

요셉은 철저하게 그 시작부터 구별 됐습니다,

함께 있지도 안 했죠?

설령 그러한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았고 그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즘은 그 죄에 대해서도 많이 관대해 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러한 음행 죄는 막 돌로 쳐 죽이는 죄였지만 지금은 한 번 봐보셔요?

바깥에 있는 많은 곳에 얼마나 많은 모텔들이 있습니까?

또 남편과 아내가 있는 그러한 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 아내와 또한 남편들이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많이 만연 돼 있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죄 짓는 것이 별로 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애굽의, 애굽 그 당시에도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기준을 그 당시의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죄가 아닌 하나님께 큰 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에게 조금 미안하고 그냥 양심을 한 번, 조금 가리우면 되는 그런 죄가 아닌 하나님께 지은, 하나님께 대한 죄였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이 죄에 대해서 구별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철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그 안에 거했기에 그는 죄를 이겨낼 수 있었고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시험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시험도 있고 이와 같이 패해야 되는 시험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와 같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긴 후에 항상 주님께서는 영광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을 의지할 때 항상 승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은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Porque todo lo que es nacido de Dios vence al mundo; y esta es la victoria que ha vencido al mundo, nuestra fe.

5)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Quién es el que vence al mundo, sino el que cree que Jesús es el Hijo de Dios?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죠?

구원 받지 못한 그들에게 그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 또한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위대장의 감, 집에 있는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죠?

그 자리에서 아! 나는 죄 없다고 당신의 아내가 부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와 같이 누명이 씌워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복장 터질거에요?

그냥 속이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분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의 변호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갚아주실 것에 대한 약속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밝히고 내가 그것을 무죄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꼭 시도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요셉은 변명하지 않았고 그 아내의 잘못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Y el jefe de la cárcel entregó en mano de José el cuidado de todos los presos que había en aquella prisión; todo lo que se hacía allí, él lo hacía.

(23)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Y el jefe de la cárcel entregó en mano de José el cuidado de todos los presos que había en aquella prisión; todo lo que se hacía allí, él lo hacía

감옥에 있는 요셉.

종이 된 것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감옥에 있는 요셉,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감옥은 우리 지금 그 교도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정말 그 지하에 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정말 음침하고 더럽고 정말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형통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 곳에서도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옥의 눈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이 보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 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증거에 대한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그는 바로 왕의 그 두 신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로 인,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바로왕의 꿈까지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창세기 40장을 보면서요, 4절을 보시면,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Y el capitán de la guardia encargó de ellos a José, y él les servía; y estuvieron días en la prisión.

시위대장이 요셉을 그 두 명의 관원을 수종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보디발 장군이 비록 요셉을 감옥에 쳐 넣었지만 요셉에 대한 신뢰만큼은 잊지 않고 있었, 잃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 보디발 장군이었다고 하고, 어, 해본다면 그런 힘이 있었기에 요셉정도 종정도는 감옥에 쳐 넣을 필요도 없죠?

죽여 버렸을거에요

그런데 그는 요셉을 감옥에 넣고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두 왕의 신하들을 잘 봅니다.

6절에 보시면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Vino a ellos José por la mañana, y los miró, y he aquí que estaban tristes.

심지어는 그 두 명의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 빛이 있었다 라는 것까지 파악을 해내고 있어요

그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하였는가?

그는 수동적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충성을 하였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듣고,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서 결국 요셉을 애굽왕 바로 앞에 세우기까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사실 계획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라는 의문이 들, 들 정도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실은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종이라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했고 감옥에서 그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던 그러한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범사를 정말 주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37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Encomienda a Jehová tu camino,
Y confía en él; y él hará

(6)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Exhibirá tu justicia como la luz,
Y tu derecho como el mediodía.

(7)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Guarda silencio ante Jehová, y espera en él.
No te alteres con motivo del que prospera en su camino,
Por el hombre que hace maldades.

요셉은 아마 이 시편의 말씀 물론 시편의 말씀이 후에 기록되었겠지만 요셉은 정말 이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비춰졌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인내의 시간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함을 통해서 요셉이 결국 애굽이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결국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십니다.

물론 그 길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은 주님 앞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요셉과 같이 총리대신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요셉과 같이 이 세상에서 그 상급을 보여주시고 또한 영원한 곳에서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되고 그것이 다였다면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이 이와 같이 꼭 공부해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총리대신이 되었기에 우리가 요셉을 공부해 본 것이 아니고 실은 총리대신 그 된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더 큰 상급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 앞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릴 때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고 또한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면 이 세상에서도 높이 세워주실 것이며 혹시 필요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는 안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 앞에 갈 때는 정말 영광스러운 상급으로써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와 같이 우리도 참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성실되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되어야 겠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어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찌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No temas en nada lo que vas a padecer. He aquí, el diablo echará a algunos de vosotros en la cárcel, para que seáis probados, y tendréis tribulación por diez días. Sé fiel hasta la muerte, y yo te daré la corona de la vida.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고 또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도 교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질 일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참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어린이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 본이 되고 또한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어린이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